

대전 투자생태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민석**, 안기돈***, 홍은영****

[국문요약]

급속한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전은 핵심 특화자원인 대덕특구의 우수기술을 활용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창업 감소와 투자할만한 기업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대전 투자생태계의 핵심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Isenberg(2011)의 6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투자생태계 구성 주체와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전 창업기업, 투자자, LP(Limited Partner) 등과의 심층인터뷰 결과, 지나친 기술지향적인 기업 성향에서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분석되었다. 기술지향적인 기업 성향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덕특구의 딥테크를 활용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우수기술 연구팀과 강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예비창업자와의 네트워크는 전무한 상황이다. 대전의 핵심 특화자원인 대덕특구의 우수기술을 활용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생태계의 구성요소 중에서 인적자원인 기업가 양성과 네트워크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 대전 투자생태계, 창업생태계, 6개 구성요소, 네트워크, 기업가

1. 서론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로, 2050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51.1%로 크게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40.1%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통계청, 2021),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성공한 지역의 공통점은 지역의 특화자원 중심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특징

을 갖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이란 거대위기에 직면한 한국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특화 전략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핵심 특화자원을 가진 대전은 대덕특구를 활용한 창업활성화가 가장 바람직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생태계 및 투자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대전의 벤처기업수는 2020년 기준, 2,174개사로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전국 5위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벤처기업실태조사,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3093218)

** 제1저자,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연구교수, puzzle2nd@cnu.ac.kr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angidon@cnu.ac.kr

**** 공동저자,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연구교수, silver4ever@cnu.ac.kr

2020), 창업초기와 스케일업 단계의 성장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기술창업이 활발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기술기반업종의 창업은 최근 5개년(2018~2022년)간 0.6%의 성장에 머무르고 있고, 신규투자 또한 전국 신규투자에서 대전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전년대비 17.4%가 감소한 수치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글로벌 창업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딥테크 창업을 위해 대덕특구의 우수기술을 활용한 딥테크 창업 전략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딥테크 창업을 위한 창업생태계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우수기술에 기초한 창업기업들 중심으로 기업의 지나친 기술지향적인 성향 때문에 시장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약하고 글로벌 시장과 같은 큰 시장을 향한 판로개척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부족하다.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 소재 벤처기업들은 투자유치 보다는 정부정책자금과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자금의 비중은 74.8%로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전지역의 벤처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과 민간 투자유치에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는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투자청 설립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전의 열악한 투자생태계의 핵심 문제점은 자금 부족 보다는 투자할만한 기업의 부재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즉, 대덕특구의 우수기술에 기초한 지나친 기술지향적인 성향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대덕특구의 우수 기술 대비 강한 기업가정신의 기업이 부재가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대전 기업가들은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조차 적극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의 핵심 해결책인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전략으로 대전의 대덕특구 중심의 투자생태계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투자생태계 구성 주체들인 창업기업, 투자자, LP 세 그룹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전 창업생태계와 투자생태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창업 및 투자생태계의 선행연구를 알아보고, III장에서는 대전 투자생태계의 현황을 살펴본다. VI장에서는 창업기업, 투자자, LP 세 그룹의 심층인터뷰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결론 및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II.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논의

2.1 선행 연구

지역 창업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창업생태계는 지역의 특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모든 요인을 총체적으로 포함시켜야한다는 전체론적 접근이 중요하다(Isenberg, 2011).

Isenberg(2011)는 지역 기반의 창업생태계 모형의 복잡한 요인들을 정책, 금융, 문화, 지원, 인적자원, 시장 등의 6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6가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지역 창업생태계를 분석하는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현장(2018)은 제1판교테크노밸리 창업생태계를 6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판교테크노밸리는 지자체의 강력한 정책의지, 풍부한 지원 프로그램 및 공공 창업지원 공간, 서울 시장과의 근접성, 풍부한 인적자원 등이 장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만, 민간 투자자금의 부족과 다양한 주체들 간의 교류 네트워크 부족 등 민간 역할의 제한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홍은영·최종인(2023)은 Isenberg(2010)의 창업생태계 6개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대전 창업생태계의 환경변동성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전 창업생태계는 6가지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변화와 지속적 인구 유출로 인한 인적자본의 부족, 그리고 일부 미흡한 지원 요소 등이 생태계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발굴과 분권형 정책 등 조직군이 견고해질 수 있는 생태계 진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한편, 창업생태계에서 위 6가지 구성요소 중 ‘정책’과 ‘자금’에서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경우 ‘정책’은 정부의 R&D지원, ‘자금’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펀드 등이다. 한국의 창업생태계는 최근 몇 년동안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창업을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서 벤처캐피탈, 창업 인큐베이터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창업생태계는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의 글로벌 창업생태계에 20위로 첫 진입하였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창업생태계 중 하나로 꼽히며, 가장 큰 강점은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을 들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

6개의 구성요인을 재구성하여 지역 창업생태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Foster et al.(2013)은 창업생태계의 영

역을 접근 가능한 시장, 인적자본 및 인력, 자금조달 및 금융 이상의 3가지 영역으로 보았으며, Stam(2015)은 창업생태계의 요소를 제도, 문화, 인프라, 수요 등의 프레임워크 조건과 네트워크, 리더십, 자금, 인재, 지식, 지원 서비스 및 중개자 등의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김소연 외(2020)는 싱가포르 창업생태계를 정책, 문화, 시장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네거티브 규제, 대학의 실용적인 창업교육과 일원화된 창업지원, 스타트업 클러스터와 다국적 협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각의 구성요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도 강조하였다.

한편, 나선모형(Helix model)을 활용하여 창업생태계 구성주체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나타났다(Erinal, Shatrevich & Gaile-Sarkane, 2017; 홍은영·성을현·안기돈, 2021; Feld & Hathaway, 2020).

Erinal, Shatrevich & Gaile-Sarkane(2017)는 Isenberg(2011)의 창업생태계 구성부문을 기반으로 삼중나선(triple helix) 변수를 선택하여 산업과 대학, 그리고 정부의 삼중 나선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학의 인큐베이터, 정부기관 및 산업 지식 네트워크와 같은 R&D 관련 요소들은 세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큰 생태계일수록 고부가가치 및 경쟁우위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홍은영·성을현·안기돈(2021)은 삼중나선모형과 사중나선(quadruple helix)모형 이론을 기반으로 대덕특구 창업생태계 사례를 분석하였다. 대전의 핵심 특화자원인 대덕특구내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조직인 산학협력중개조직인 '코디네이터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대덕특구의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조직인 이 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Feld & Hathaway(2020)는 창업생태계의 부분집합이자 생태계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인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발원과 성장을 볼더 테제(Boulder thesis)를 통해 설명하였다. 볼더 테제의 핵심내용은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창업가가 주도해야하며 리더들의 장기적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커뮤니티는 포용적이어야 하고, 전체를 아울러 활동적이어야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핵심 자산으로 지적, 인적, 재무적, 네트워크, 문화, 물리적,, 그리고 제도적 자본이 있으며, 이러한 7가지 자본 모두 지역의 특성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자생적인 창업생태계와는 달리 정부주도의 창업생태계 조성은 제도와 시스템의 모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규수·박배진(2023)은 판교테크노밸리의 벤처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창업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인재, 자금조달, 네트워크 및 기업가정신 이상의 5가지 요인을 실리콘밸리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판교테크노밸리는 개방적 네트워크와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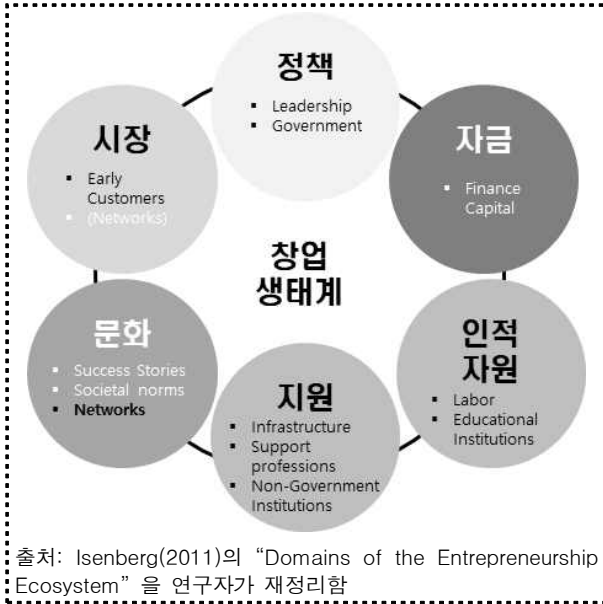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창구·서영옥(2018)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2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체계, 창업문화, 인재양성 및 자금지원 등을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인재양성, 금융인프라, 성장단계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으로 창업수당, 펀딩확대, 창업 세금 감면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2.2 창업생태계 이론

선행연구들을 통해, 창업생태계의 주요 구성부문을 알아 보았다. Isenberg(2011)가 제시한 정책, 시장, 자본, 인적자본, 문화, 지원 등 6가지 생태계 구성부문을 새롭게 통합되거나, 세부적으로 분류되고, 다른 요인의 추가 또는 6가지 부문 그대로 여러 후속 연구에 등장하고 있다. 생태계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도 중심변수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에도 생태계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임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Isenberg(2011) 모형의 6개 구성요인 중심으로 대전 투자생태계를 분석하기 위해, Isenberg(2011) 창업생태계가 강조하는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Isenberg(2011)는 지역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6가지 구성요소의 개별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각 요소간의 영향까지 고려하는 전체론적(holistic)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6개의 구성요소는 기업가의 창업에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창업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본 모형은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창업기업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판로개척을 위해 초기 고객 및 디이스포라(Diaspora)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또한 창업 성공스토리를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창업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Networks)를 Isenberg(2011)가 제시한 시장요인 보다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문화 요인으로 간주하여 대전 투자생태계를 분석한다.



<그림 1> 창업 생태계의 영역

III. 대전 투자생태계 현황

3.1 대전의 경제구조

2021년 대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46.38조 원으로 전국 대비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이다.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는 대전은 서비스업 비중이 77.5%로 전국에서 서울(92.7%)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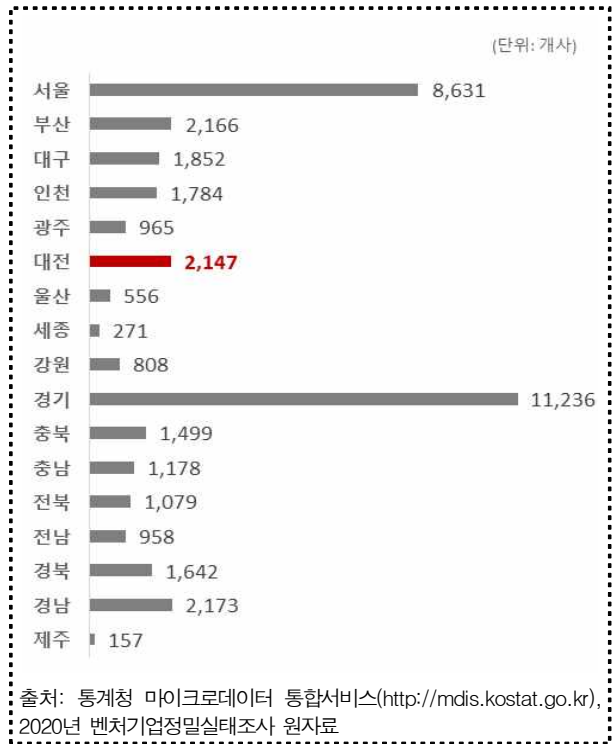
2021년 전년대비 GRDP 3.1%에 대한 산업별 실질 기여도²⁾를 살펴보면, 광·제조업(0.75%p), 건설업(0.40%p), 교육서비스업(0.39%p) 순으로 대전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제조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서비스업도 양(+)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나, 대전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1)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지역소득

2) 기여도=산업별 연간성장률(실질)×전년도 GRDP총액 대비 산업별 비중으로 계산되며, GRDP성장률에 대해 산업들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나타냄.

3.2 벤처기업현황

2020년 기준, 전국 벤처기업은 39,101개로 경기도가 11,236개사(28.7%)로 가장 많고, 서울 8,631개사(22.1%), 경남 2,173개사(5.6%)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2,147개사로 전국 대비 5.5%의 비중으로 17개 시도 중 5위의 규모를 보였다.



<그림 2>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

대전은 기계/자동차/금속 분야의 벤처기업이 521개사(24.3%)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분야가 322개사(15.0%),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분야가 273개사(12.7%)로 그 뒤를 이었다.

대전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창업기 40개사(1.9%), 초기성장기 682개사(31.8%), 고도성장기 545개사(25.4)%, 성숙기 838개사(39.0%), 쇠퇴기 42개사(2.0%)로 성숙기와 초기성장기 단계의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에 비해 대전은 고도성장기와 창업기의 벤처기업 비중이 낮는데, 이는 창업초기 및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지원과 투자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1> 대전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전국	비중	대전	비중
창업기	1,215	3.1	40	1.9
초기성장기	12,816	32.8	682	31.8
고도성장기	13,830	35.4	545	25.4
성숙기	10,351	26.5	838	39.0
쇠퇴기	889	2.3	42	2.0
합계	39,101	100.0	2,147	100.0

출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http://mdis.kostat.go.kr>),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2020년 기준 대전 벤처기업 평균 종사자수는 20.3명으로 17개 시도 중 6위로 나타났다.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26.2)으로 대전이 5.9명 적은 수치이나, 전국 평균 20.9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³⁾

대전 벤처기업 인력의 특징은 박사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대전은 벤처기업 종사자 중 박사의 비중이 5.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전의 특화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대덕특구의 출연연과 카이스트의 인력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3 창업현황

2022년 기준, 전국의 창업기업은 전년대비 7.1% 감소한 1,137,479개사로 나타났으며, 대전 창업기업은 33,699개사로 전년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창업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12,607개사(37.4%)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업이 4,510개사(13.4%), 숙박 및 음식점업 4,432개사(13.2%)로 그 뒤를 이었다.⁴⁾

전국의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2022년 229,416개사로 전년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2022년 5,207개사로 전년대비 3.4% 감소하여 17개 시도 중 10위로 나타났다. 최근 5개년(2018~2022년)의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수 연평균성장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6.3%로 가장 높았고, 경기(5.0%), 강원(3.0%)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최근 5개년 동안 0.6% 성장을 보여 전국 17개 시도 중 9위로 기술기반업종 창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지역의 기술창업이 활발하다는 인식과 상반된 결과인데, 대덕특구의 출연연과 카이스트에 국한된 기술창

업 붐이 대전지역 전체로의 기술창업으로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표 2> 대전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현황(2018~2022년)

(단위: 개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 대비 (2022)	CAGR (2018 - 2022)
전국	212,237	220,607	228,949	239,620	229,416	-4.3	2.0
서울	51,615	53,568	55,049	56,809	53,265	-6.2	0.8
부산	11,194	11,568	11,211	11,367	11,305	-0.5	0.2
대구	8,313	8,263	7,917	8,015	7,678	-4.2	-2.0
인천	10,694	11,359	11,377	11,935	12,051	1.0	3.0
광주	5,247	5,424	5,307	5,534	5,151	-6.9	-0.5
대전	5,078	5,300	5,336	5,391	5,207	-3.4	0.6
울산	4,016	3,991	3,733	3,533	3,702	4.8	-2.0
세종	1,581	1,737	1,630	1,718	1,735	1.0	2.4
경기	64,449	67,955	76,709	84,215	78,312	-7.0	5.0
강원	3,678	4,163	4,951	4,187	4,229	1.0	3.6
충북	5,301	5,325	5,444	5,701	5,969	4.7	3.0
충남	7,063	7,071	7,453	8,449	9,004	6.6	6.3
전북	5,016	5,328	5,479	4,999	4,828	-3.4	-1.0
전남	5,134	5,276	5,089	4,979	4,939	-0.8	-1.0
경북	8,586	8,519	8,002	8,144	8,065	-1.0	-1.6
경남	13,011	13,322	11,824	11,968	11,478	-4.0	-3.1
제주	2,261	2,408	2,438	2,686	2,498	-7.0	2.5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창업기업동향

대전 창업기업들의 생존률을 살펴보면, 1년 생존률이 64.7%로 전국평균인 64.8%보다 0.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년수의 증가시에도 각 연도별 생존율은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존율을 높여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생존율은 정책지원측면에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딥테크창업과도 연관이 있는데, 기술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 대덕특구의 딥테크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딥테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 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전주기지원 방안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3) 출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http://mdis.kostat.go.kr>),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4)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창업기업동향

<표 3> 대전과 전국평균 신생기업 생존율(2020년)

(단위: %)

구분	생존율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전국	64.8	53.6	44.3	38.5	33.8	28.6	25.1
대전	64.7	53.3	44.0	36.6	31.9	28.0	23.6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기업생멸통계

3.4 투자현황

2022년 지역별 신규투자는 수도권이 4조 9,485억 원으로 국내 신규투자의 73.1%를 차지하고 있다. 5대 광역시는 9.9%(6,692억 원), 지방은 7.7%(6,264억 원)로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의 2022년 신규투자는 3,606억 원으로 전국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다. 5대 광역시 신규투자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9%로 수도권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을 기점으로 전국 신규투자에서 대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년대비 17.4%가 감소하여 전국 평균이 11.9% 감소와 비교하여 5.5%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4> 지역별 벤처(신규)투자 현황(2018~2022년)

(단위: 억원,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전국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9,162	△11.9
	100.0	100.0	100.0	100.0	100.0	-	-
수도권	25,299	30,685	30,985	57,673	49,485	△8,188	△14.2
	73.9	71.7	72.0	75.1	73.1	△2.0	-
대전	1,985	3,406	2,585	4,363	3,606	△757	△17.4
	5.8	8.0	6.0	5.7	5.3	△0.4	-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2023.01.30.)를 연구자가 재작성

대전 벤처기업들의 투자자금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자금 비중이 74.8%로 가장 높았고, 일반 금융이 18.4%, 벤처캐피탈이 1.8%로 그 뒤를 이었다. 회사채발행 비중이 전국평균과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비중이 전국(2.2%)보다 0.4%p 낮은 1.8%로 나타나 일반금융 및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지역별 벤처기업 투자자금조달 방법

(단위: %)

구분	IPO	벤처캐피탈	회사채발행	정부정책자금	일반금융
전국	0.2	2.2	1.1	64.1	28.2
서울	0.0	3.0	0.6	77.0	18.1
인천	0.1	5.1	1.2	65.5	22.9
경기	0.4	0.9	0.4	64.7	31.5
대전	0.6	1.8	1.5	74.8	18.4

출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http://mdis.kostat.go.kr>),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3.5 소결

대전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의 GRDP로 경제규모가 작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약 78%에 달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표할만한 기간산업 또한 없어 지자체의 지역주력산업 조성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 지역 투자생태계의 현황도 그리 밝지는 않다. 벤처기업수는 전국 5위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창업초기와 스케일업 단계의 성장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기술창업이 활발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기술기반업종의 창업은 최근 5개년(2018~2022년)간 0.6%의 성장에 머무르고 있고, 신규투자 또한 전국 신규투자에서 대전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전년대비 17.4%가 감소한 수치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타개하고 대전의 경제성장률과 투자생태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해법은 대전의 핵심 특화자원의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대덕특구를 활용한 전략이 가장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끌어내지 못한 원인을 밝히고 대전경제의 새로운 대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IV장에서는 대전 투자생태계 구성원 21개사의 심층인터뷰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IV.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방안 심층인터뷰1)

4.1 연구방법

대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본연구는 지역 투자생태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대전 지역에서 창업기업, 투자자, LP(Limited Partner)로 활동하고 있는 투자생태계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두달간 진행되었다.

창업기업 8개사, 투자자 9개사, 그리고 LP 4개사가 응답하여 총 21개사가 심층인터뷰에 응답하였다. 인터뷰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주로 면대면 심층인터뷰로 진행하였으나 일정 상 대면인터뷰가 어려운 경우 화상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조사 내용은 창업기업, 투자자, LP 세그룹으로 분류하여, 한국과 대전의 창업생태계의 특성을 묻는 공통 질문과 더불어 그룹별 특성에 따른 세부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 창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그룹별 세부 질문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공통질문과 그룹별 특성에 따른 질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심층 인터뷰 조사 내용

구분	대분류	소분류	질문 내용
공통 질문	국내 및 대전 투자생태계 특성	국내 투자생태계 특성	1. 국내 투자생태계의 특징 2. 국내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및 차별화를 위한 제언
		대전 투자생태계 특성	3. 대전 지역만의 투자생태계 특징 4. 수도권 대비 대전 투자생태계의 문제점 5.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창업기업	대전 창업의 특징	6. 대전 창업의 특징 7. 대전 창업의 장점과 단점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

1) 본 장은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충청권 엔젤투자허브(2022)의 “지역 투자생태계 조사연구”의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하였음

구분	대분류	소분류	질문 내용
투자자	투자자 입장에서 대전 투자생태계 특성	대전 투자생태계의 특징	10. 대전 투자생태계의 특징
		대전 스타트업 및 투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대전 투자생태계의 문제점 및 제안사항
		대전 투자를 위한 차별화 전략	12. 대전 지역 투자를 위한 차별화 전략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	13. 대전시의 투자청 설립에 관한 의견 14.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LP	LP입장에서 대전 투자생태계 특성	창업의 특징	15. LP가 느끼는 대전 창업의 특징
		지역 내 성장기업의 LP 활동 참여조건	16. 지역 내 성장 기업으로서 LP에 참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	17.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4.2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4.2.1 국내 투자생태계 특성

질문 1. 국내 투자생태계의 특징(장/단점, 특이한 점 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 투자생태계의 특성을 묻는 심층인터뷰 결과, 국내 투자생태계는 ①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②좋은 인력은 많으나 시장 규모가 작다는 점에 세 그룹 모두 동의하는 응답을 보였다. 각 그룹별로 강조한 특징을 살펴보면, 창업기업은 정부주도의 창업생태계 운영을 강조하였으며, LP 역시 정부의 모태펀드가 벤처투자를 주도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보았다. 투자자 또한 정부주도의 생태계 운영을 특징으로 보았으나, 기업가정신이 취약한 점을 국내 투자생태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강조했다.

창업관련 특성으로는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킹과 멘토링 등 창업 플랫폼 기반이 약하다는 의견과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이 지분 공유에 인색한 면이 있어

팀빌딩에 어려움이 있다는 세부 의견도 제시되었다.

투자관련 특성으로는, 현재 벤처투자는 모태펀드가 주도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들은 모험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BT분야 보다는 ICT분야로의 투자가 높아지고 있는 현황이 제시되었다. 또한 회수관련, 국내 대기업들이 M&A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저조한 M&A 등으로 인해 회수방안이 한정되어 있어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내 투자생태계의 장점으로 다양한 정부지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으나, 이러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성과위주의 보여주기식 정부과제가 많다는 점, 그리고 3년 이상 기업에 대한 정책단절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함께 취약한 기업가정신, 협소한 국내시장 등이 단점으로 제시되었다.

질문 2. 국내 투자생태계의 특징에 기초해서 국내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및 차별화를 위한 제언이 있을까요?

국내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및 제언을 정리해보면 ①네트워크 활성화, ②창업기업에 대한 전주기지원, ③민간투자의 활성화, ④글로벌 시장 진출로 요약할 수 있다. 세그룹 모두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스타트업들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무적이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창업 전 팀빌딩부터 시작하여, 창업과 창업 이후, 그리고 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주기지원 또한 세그룹 모두 강조하였으며,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방안 마련과 국내 시장 협소로 인한 해외진출 필요 등이 국내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제시되었다.

4.2.2 대전 투자생태계 특성

질문 3. 대전은 대덕특구란 특화자원이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대전 지역만의 특징이 있습니까?

대전 투자생태계의 특성을 묻는 심층인터뷰 결과, 세 그룹 모두 ①대덕특구 연구역량과 인프라 활용, ②이에 기반

한 활발한 기술창업, ③최적의 정주여건, ④공공섹터 중심의 열악한 시장 규모 등을 대전 투자생태계의 특성으로 꼽았다. 각 그룹별이 제시한 특징으로는, 창업기업들은 기술과 인력은 있으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즉 창업생태계의 부재를 대전의 특징으로 꼽았다. 투자자와 LP는 활발한 기술창업을 대전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았다.

대덕특구 출연연의 인적자원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개발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비해 기술창업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기술창업의 분야로는 대덕특구 및 카이스트 중심으로는 바이오에 집중되고 있으며, 대덕특구 전체적으로는 IT기업이 많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펀드도 타지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다는 현황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대전의 입지조건으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을 빌드업하기에 최상의 지역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전 투자생태계의 또다른 특성이자 장점으로 최적의 정주여건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낮은 주택가격과 매우 짧은 출퇴근 시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대전의 투자생태계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공공섹터 중심의 작은 시장 규모 또는 시장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그 외 강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가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타지역에 비해 창업공간이 분산되어 있어 창업지원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의견, 그리고 낮은 기술사업화 역량 등이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질문 4. 수도권 대비 대전 투자생태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수도권 대비 대전 투자생태계의 문제점은 ①창업기업의 모수 부족, ②인력확보의 어려움, ③네트워킹 기회 부족, ④투자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적은 창업기업의 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질의 인력과 투자기관들, 그리고 네트워킹 기회 등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대전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들도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5. 대전 투자생태계의 특징 및 문제점에 기초해서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대전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세그룹 모두 ①네트워크의 활성화, ②도전적인 기업가정신 함양(창업기업의 대폭 확대), ③민간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전 투자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 구성원들간의 활발한 네트워크는 꼭 필요하며, 대전의 뛰어난 기술을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끌 수 있는 도전적인 기업가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과학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기술이전 보상체제의 마련, 양질의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정주여건의 제공, 창업자 인프라가 없는 지역 특화산업의 축소 및 정리 등이 활성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4.2.3 창업기업 입장에서의 대전 투자생태계

질문 6. 창업기업이 느끼는 대전 창업의 특징이 있을까요?

창업기업들은 대전 창업의 특징으로 출연연의 인력과 기술의 활용을 꼽았다. 출연연 양질의 인적자원과 기술 인프라를 매우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이라 응답했으며, 이를 이용한 기술창업이 활발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성공한 기업은 그리 많지 않고, 성공하면 거의 대전을 떠나는 케이스가 많은 점을 강조하였다.

질문 7. 창업기업 입장에서 대전 창업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업기업들이 대전 창업의 장, 단점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장점으로는 정주여건이 좋으며, 수도권 대비 비용이 저렴하고, 기술관련 고급 인력이 많다는 등의 응답이 있었다. 단점으로는 작은 규모의 시장 또는 부재, 창업기업 제품의 초기 구매자의 부족, 다양한 분야의 인력수급의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대덕특구는 공공섹터 중심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민간 시장의 규모가 매우 열악함을 지적했다. 다만, 창업기업에게 판로개척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대덕특구의 공공섹터가 초기 구매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출연연 연구자들이 자기 기술의 우수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며, 투자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깊은 과학자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질문 8. 창업기업이 느끼는 대전의 투자생태계는

창업기업들이 느끼는 대전 투자생태계는 다음과 같다. 서울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공공 투자자 비중이 높으며, 이로 인해 네트워크 역시 공공 중심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공 중심의 네트워크가 있으나 투자사, 전략적 투자기업, 벤처캐피탈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 투자받기 위해서는 서울을 가야하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9. 창업기업입장에서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업기업들이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투자유치의 프로세스와 성공요인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및 투자자와 창업기업을 연결시키는 프로그램 등 투자자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출연연의 과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과학자 활용방안이 필요하며, 대전시가 LP로 대전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4.2.4 투자자 입장에서의 대전 투자생태계

질문 10. 투자자 입장에서 대전 투자생태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투자자들은 대전 투자생태계의 특징으로 기업가의 부족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의존성, 그리고 투자생태계 핵심역량 간의 연계 부족을 대전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진 기업가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대전 창업생태계의 근본적인 약점으로 제시하면서, 이로 인해 대덕특구 외에는 이렇다할만한 투자처가 없어 투자 대상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대전 창업기업들은 시장에서 인정 받으려고 하기 보다는 정부사업을 통해 안정성만 지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연관된 의견으로 대전 창업기업들은 시장에 대한 고찰보다는 자신의 기술만을 강조

하는 경향이 높아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투자생태계 구성원간의 특징으로는 기업 보육 및 초기 투자를 위한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과 지역이 보유한 핵심역량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질문 11. 투자자 입장에서 대전 투자생태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혹시 제안할 사항이 있습니까?

투자자들이 제시한 대전 투자생태계의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정리해보면, 문제점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모수가 너무 적은 점과 창업기업들의 투자유치 노력이 매우 부족한 점, 그리고 대전에 큰 운용자산을 보유한 벤처캐피탈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제안사항으로는 대전 투자생태계를 위해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창업기업의 대폭적인 확대라고 강조하였고, 지자체인 대전시는 끊임없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동시에 지역 기반 민간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LP로 참여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잘 수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대전지역 산업현황과 기업을 잘 파악하고 있는 투자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질문 12. 혹시 대전 투자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 있을까요?

대전투자를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는 카이스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딥테크 분야의 기술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 등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등 연구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을 통한 벤처창업 펀드 조성 and 지자체의 적극적인 LP참여가 차별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질문 13. 적은 투자자 수와 규모의 투자 그리고 투자할 기업(스타트업 포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시는 투자청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 투자청 설립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²⁾인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설립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투자생태계가 활성화된다면 설립이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설립의 목적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에 있는 사람보다는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운영이 필요하고, 대전 소재 투자사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투자청의 앞으로의 역할에 관해서는 직접투자자가 아닌, 긴 안목으로 회수시장의 마중물(세컨더리 펀드) 역할을 해준다면 대전 스타트업에 대한 더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이끌 수 있다는 의견과,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역할을 강조한 의견이 있었다.

질문 14. 특별히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자들은 대전 투자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 큰 규모의 지역펀드 조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성공스토리 등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원정책 측면에서는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는 많은 지원 정책들과 파편화된 여러 지원기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4.2.5 LP 입장에서의 대전 투자생태계

질문 15. LP로서 대전 창업의 특징이라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LP들은 대전 창업의 특징으로 활발한 기술창업을 꼽았다. 대전은 기술창업이 활발하며, 특히 딥테크에 집중한 케이스가 많다는 의견이다. 또한 대전지역 운영사들은 바이오 기업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질문 16. 지역 내 성장 기업으로서 LP에 참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 내 성장기업이 LP에 참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전시와 함께 시스템 구축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2) 대전광역시(<http://www.daejeon.go.kr/>) 보도자료 2022년 11월 25일자

의견이 있었다. 대덕특구를 활용, 대전시 특성에 맞는 창업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화와 같은 세제 혜택과 더불어 LP기업의 니즈(needs)를 파악한 후, 단순히 재무적 성과만을 강조하기 보다 생태계 조성과 LP기업 목표달성을 위한 협업의 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질문 17. LP입장에서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LP들은 대전 투자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 임팩트 투자, 딥테크 투자, 소셜벤처 투자 등 다양한 컨셉을 가진 지역 운용사의 확대가 필요하며, 좋은 창업기업의 발굴과 더불어 투자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LP입장에서는 투자와 회수가 잘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 사례가 있어야 투자에 참여하게 되는데, 대전지역의 선순환구조 사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2.6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및 개선점

대전 지역에서 창업기업, 투자자, LP로 활동하고 있는 투자생태계 구성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대전 투자생태계의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대전 투자생태계 분석 결과

구분	내용
정책	모태펀드의 부족
시장	작은 시장, 초기 고객의 부재
자금	투자자금 확보의 어려움, 투자유치 노하우 부족
인적 자원	투자할 기업의 부족, 기업가 부족, 기업가정신 부재, 인력확보의 어려움
문화	기술창업, 네트워킹의 부족,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 창업 성공스토리 부족
지원	양질의 연구 역량, 우수한 기술개발 인프라, 창업지원 프로그램 부족, 양호한 정주여건

대전 투자생태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Isenberg(2011)의 6가지 구성요소 중 지원 부문의 측면에서 대덕특구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이에 기반한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화 부문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지나친 기술지향적인 성향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와 함께 강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가의 부족으로 대전 전체적으로 창업기업의 모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는 문화 부문의 기술지향적 성향이 인적자원 부문의 기업가정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 외 최적의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창업공간의 경우 너무 분산되어 있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수도권 대비 대전 투자생태계의 문제점으로는 특징에서도 제시되었던 창업기업의 모수 부족이 다수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인력확보가 어렵고, 네트워킹 기회가 부족하며, 투자자금 확보가 수도권에 비해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인적자원과 문화 부문의 취약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투자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문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Isenberg(2011)가 제시한 기업가적 생태계 6가지 구성부문과 함께 시장부문의 네트워크를 문화부문으로 포함하여 인터뷰 내용을 정리·분석하였다.

Isenberg(2011)은 정책 부문의 요인으로 리더쉽과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는데, 심층 인터뷰의 내용 중 정부의 투자지원이나, 자금지원, 그리고 규제 인센티브의 내용들을 주로 매칭하였다. 자금부문은 창업기업이 필요로하는 모든 투자처들의 투자를 말하며, 지원 부문은 기반시설과 전문가 지원 등을 인터뷰 내용과 매칭하였다. 시장부문은 초기 고객 부문과 시장개척 등의 내용을 매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가지 구성부문 중 시장 부문의 '네트워크'를 대전 투자생태계 구성원들의 다양한 네트워크, 즉 기업가간의 네트워크, 기업과 투자자간의 네트워크, 모든 구성원과의 네트워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 부문으로 간주하였고, 인적자원 부문에서는 '기업가정신' 요소를 강조하여 매칭을 진행하였다. Isenberg(2011) 6가지 구성 부문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구성부문

구분	창업기업	투자자	LP	총 합
정책	○	◎	○	◎
시장	○	-	○	○
자금	◎	○	◎	●
인적자원 (기업가정신)	◎	●	●	●
문화 (네트워크)	●	◎	●	●
지원	●	○	○	●

중요도 : -(무응답), ○(보통), ◎(중요), ●(매우 중요)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네트워크) 부문이다. 구성원 세 그룹 모두 네트워크의 부재를 지적했는데, 현재 대전 투자생태계는 산학연관, 기업 간, 기업과 투자사 등 모든 분야의 네트워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적자원(기업가정신) 부문이다. 특히 투자자와 LP 그룹에서 강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가의 부족으로 대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창업기업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셋째, 지원과 자금 부문이다. 창업기업은 지원 부문을 강조하였는데, 창업 전반에 걸친 지원과 투자자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의견이 다수 있었다. 투자자는 마케팅 강화 등을 제시했고, LP는 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자금 부문에 대해서는 창업기업은 대전 소재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대전 소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투자자는 지역펀드 조성을, LP는 다양한 컨셉을 가진 지역 운용사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4.2.7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안

대전지역 창업기업, 투자자, LP 세그룹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3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 및 투자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대전 투자생태계 네트워크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은 네트워킹의 주도가 아닌 창업공간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의 제시 등과 같은 지원분야에 힘을 쓰고, 민간에서는 볼더의 예(Feld & Hathaway, 2020)와 같이 대전 지역에서 성공한 창업가의 네트워킹 리드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민간 네트워크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전 스타트업 네트워크’와 같은 민간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제안한다. 대전 스타트업 네트워크는 대전 지역 창업 관련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지원을 위해 격월 기업 방문 네트워킹, 연 2회 워크숍, 포럼 및 지역 전문가의 재능기부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의 선배 창업가와 초기 창업가 간의 끈끈하고 탄탄한 교류에 그 목적이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대전의 특화자원인 대덕특구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 양성이 절

실하다. 대전 기업들의 특성으로 제시된 기술지향적인 성향은 팀빌딩을 저해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가정신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의 단편적인 주입 위주의 교육이 아닌 모든 구성원이 멘토 및 멘티가 되어 구성원간의 기업가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강한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 양성을 위해 대전 지역 기업, 대학,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협의하고 운영하는 ‘기업가정신 양성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제안한다. 2022년 대전지역의 DJC 협의체를 통해 운영되었던 ‘롤모델 선배와 함께하는 창업특강’의 경우가 바로 대학, 기업, 기관 등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지역의 기업가정신을 이끌어내는 창업 프로그램이었는데, 단발성 운영에 그쳐 그 효과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은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김수진·김종성, 2020), 지역의 강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운영이 꼭 필요하다.

셋째, 대전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유니콘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덕특구의 딥테크 중심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시장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딥테크 분야에 대해 ‘예비창업단계부터 전주기를 지원하는 방안’과 더불어 강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예비창업가를 딥테크기술과 함께하는 매칭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만 대덕특구의 딥테크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현재까지 고민으로 남아있는 수도권 집중 심화현상은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와 맞물려 국내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지자체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대전은 정체된 경제를 성장시킬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기간산업이 없는 현재의 산업구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전은 기술창업이 활발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기술기반업종의 창업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투자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대전의 경제성장과 투자생태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은 대전의 핵심 특

화자원인 대덕특구의 활용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대덕특구는 대전의 핵심 특화자원으로서 대덕특구를 활용한 창업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가장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기술지향적인 성향 때문에 창업 및 투자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대전만의 독자적인 창업 및 투자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업기업, 투자자, LP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대전 투자생태계의 가장 큰 특징은 대덕특구의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용가능한 자원이 있음에도 창업기업의 모수가 부족하고, 인력확보가 어려우며, 네트워크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전 투자생태계를 활성화기 위해서는 Isenberg(2011)가 제시한 기업가적 생태계 6가지 구성부분 중 문화(네트워크)와 인적자원(기업가정신) 부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네트워킹을 활성화해야 하며, 강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가를 양성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터뷰 조사결과의 시사점이다.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전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 및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네트워킹을 확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전 스타트업 네트워크'와 같은 민간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한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제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산된 네트워크와 강한 기업가들을 기반으로 한 대덕특구 딥테크 중심의 창업 활성화이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 단계부터 전주기 지원'과 딥테크를 잘 아는 '강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예비창업가' 매칭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 투자생태계를 범위로 한 사례연구로 전체 생태계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과 수도권 등 타 도시의 사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 대전 투자생태계와 전국 및 해외 투자생태계를 비교할 수 있는 질적·양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소연·조민경·이무원(2020). 싱가포르 창업생태계 연구: Isenberg(2010) 프레임워크의 지역적변용을 통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2), 47-65.
- 김수진·김종성(2020).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4(1), 180-208.
- 김현창(2018). 제1판교테크노밸리 창업생태계 사례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4), 166-194.
- 이창구·서영옥(2018). 지역 창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 지역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6), 182-207.
-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부, (사)벤처기업협회.
- 중소벤처기업부(2021).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중소기업부.
- 중소기업벤처부(2023), 2023년 1월 30일자 보도자료, *2022년 벤처투자 동향 발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http://mdis.kostat.go.kr>)
- 통계청(2021), 2021년 12월 9일자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하규수·박배진(2023). 벤처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판교테크노밸리와 실리콘밸리의 비교연구.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7(2), 51-64.
- 홍은영·성윤현·안기돈(2021). 쿼드러플헬릭스 적용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연구**, 12(1), 108-135.
- 홍은영·최종인(2023). 대전창업생태계 조직군의 진화전략. **혁신클러스터연구**, 13(2), 1-30.
- Cohen, B.(2006). Sustainable valley entrepreneurial ecosystems.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15(1), 1-14.
- Erina, I., Shatrevich, V., & Gaile-Sarkane, E.(2017). Impact of stakeholder groups on development of a regional entrepreneurial ecosystem. **European Planning Studies**, 25(5), 755-771.
- Feld, B. & Hathaway, I.(2020). **The Startup Community Way: Evolving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John Wiley & Sons Inc.
- Foster, G., Shimizu, C., Ciesinski, S., Davila, A., Hassan, S., Jia, N., & Morris, R.(2013). Entrepreneurial ecosystems around the globe and company growth dynamics. In **World Economic Forum**, 11, 1-36.
- Stam, E.(2015).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Regional Policy: A Sympathetic Critique. **European Planning**

Studies, 23:9, 1759-1769.

Isenberg, D.(2010), How to start an Entrepreneurial Revol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88): 40-51.

Isenberg, D.(2011).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rategy as a New Paradigm for Economic Policy: Principles for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Presentation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Affairs**, 1(781), 1-13.

Mack, E., & Mayer, H.(2016). The evolutionary dynamics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Urban Studies**, 53(10), 2118-2133.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Vitalization Plan of Investment Ecosystem in Daejeon*

Min-Seok Kim**, Gi-Don An***, Eun-Young Hong****

In a situation where the sense of crisis over regional extinction due to rapidly low birth rate and hyper-aging is increasing, a strategy to utilize regional specialized resources as a solution to prevent regional extinction is very important. Although Daejeon's most important strategy is to build a startup ecosystem using the excellent technology of Daedeok Innopolis, which is a core specialized resource, it is showing problems such as a decrease in startups and the absence of companies worth investing in.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investment ecosystem members focusing on the six components of Isenberg (2011) with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core problems of Daejeon's investment ecosystem and presenting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with Daejeon start-ups, investors, LPs, etc., it was analyzed that the key is to shift from an excessively technology-oriented corporate tendency to a market-oriented paradigm. The technology-oriented nature of the company presents problems such a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market and lack of proactiveness in networking to attract investment. In particular, there is no network between excellent technology research teams and prospective entrepreneurs with a strong entrepreneurial spirit to grow into unicorn companies by utilizing the deep tech of Daedeok Innopolis. In order to revitalize the startup ecosystem utilizing the excellent technology of Daedeok Innopolis, a key specialized resource of Daejeon, nurturing entrepreneurs and activating network culture, which are human resources among the components of the investment ecosystem, were identified as key. To this end, this study presented specific programs.

KeyWord: Daejeon Investment Ecosystem, Startup Ecosystem, 6 Components, Network, Entrepreneu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C2A03093218)

** First Author, A Research Professor, Science Technology Knowledge Research Institute, Chungnam University, puzzlen2nd@cnu.ac.kr

*** Corresponding Author, A Professor, Dept. of Economics, Chungnam University, angidon@cnu.ac.kr

**** Co-Author, A Research Professor, Science Technology Knowledge Research Institute, Chungnam University, silver4ever@cnu.ac.kr